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은 광주시립미술관

‘이건희컬렉션’부터 임직순까지... 거장을 만나다

개관 30년 광주시립미술관 2022년 전시 일정

ZKM 베스트 컬렉션·광주&샌안토니오 자매도시 40주년전

조각가 권진규·미디어아티스트 요나스 메카스 탄생 100주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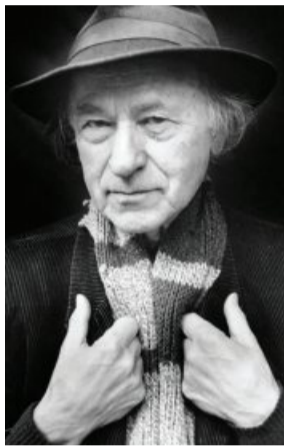
올해는 지난 1992년 전국 최초 공립미술관으로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개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지나온 30년의 역사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미술관은 올해 ‘개관30주년 기념전’과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순회전’, ‘임직순 탄생 100주년 기념전’ 등 굵직한 전시를 통해 미술 애호가들을 만난다.

지난 연말 시작해 오는 4월까지 이어지는 ‘미래의 역사쓰기: ZKM 베스트 컬렉션’전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획이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의 역사를 상징하는 독일 칼스루에의 ‘예술과 미디어센터’(ZKM·Center for Art and

Media)와 공동주최·제작한 대형 프로젝트로 ZKM의 소장품을 엄선, 미디어아트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약 60년간의 계보를 망라한 미디어아트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ZKM의 소장품을 대표하는 작가 64명의 주요 작품 가운데 미디어아트의 역사에 방점을 찍은 작품 95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의 창의성이 과학과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예술세계를 펼쳐 보이는 현상이다.

30주년 기념전은 2부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된다. 1부(4월 19일~7월 10일)는 지난 30년 동안 현대미술의 변화와 다원화 현상을 광주 미술의 흐름 속에서 발견하는 전시로 지역미



요나스 메카스

술의 다양성과 확장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 매체와 세대를 초월한 30여 명의작가를 초대한다.

2부 ‘기증의 시작’ 전(4월 19일~6월 26일)은 30년전 미술관 개관을 위해작품을기증해 준 작가 중 타지역 작가들의 작품 50점을 만나는 기획이다. 전시는 1층 로비공간으로 확장해 광주시립미술관 30년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자료도 선보인다.

호남미술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광주미술아카이브전’의 올해 초대작가는 오지호에 이어 호남 서양화 화단의 기틀을 마련한 임직순 화백이다. ‘색채의 미술사, 임직순 탄생 100주년 기념전’(가제·4월 16일~6월12일)에서는 임 작가의 그림 70여 점 및 아카이브 자료 전시를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한국 근현대 조각의 선구자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권진규’ 특별전을 서울시립미술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예술적 산보’(가제·7월 16일~10월 23일)전에서는 1950~70년대 권 작가 작품 200여 점 및 아카이브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3월부터 전시가 열린다.

광주&샌안토니오 자매도시 40주년 기념전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지역작가와 지역미술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전시로, 아시아문화도시 광주의 미술문화 및 작가를 적극 알리

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일환이다. 지금까지 중국 북경, 일본 요코하마,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에서 전시를 개최했고 올해는 샌 안토니오시와 교류 40년 기념 행사로 지역출신 작가 7명 내외가 참여해 샌안토니오 아트페이스에서 전시를 연다.

‘이건희 컬렉션 순회전’은 10월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된 5명 작가 작품 30점을 지난해 선보인 데 이어 전시로, 관심을 모은 순회전의 첫 출발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1488점 가운데 6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에는 이상범·변관식·김환기·박수근·이중섭·장욱진·유영국 등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작가 40여 명의 작품이 나온다.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뉴미디어아트의 거장 요나스 메카스 탄생 100주년, 한-리투아니아 수교 30주년, 백남준과 플럭서스 운동 9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열린다. ‘친애하는 나의 친구들’전은 리투아니아 출신 아방가르드 영화의 선구자 요나스 메카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실험적 다큐멘터리 영상과 시 등을 만날 수 있다.

하정웅미술관 온라인 VR전시 ‘하정웅컬렉션 하이라이트 I’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전시로 매년 전시를 이어간다. 기준이 온라인 전시와는 차별된 이번 VR 전시는 미술관에서 직접 관람한 듯한 색다른 경험을 전해주고 있다. 오는 12월31일까지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VR 링크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그밖에 광주미술의 역사와 광주미술을 지켜온 사람들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광주시립미술관 30년사’와 ‘광주시립미술관 소장작품 특선’ 도록도 발간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임인년 신년음악회’

오늘 온라인 생중계... 16일 ‘열린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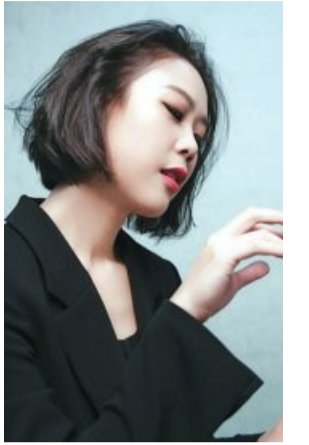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2022 신년음악회’가 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이번 음악회는 예술의전당 네이버TV·유튜브 채널, KBS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으며, 16일 오후 5시 40분 KBS 1TV ‘열린음악회’를 통해 80분간 방송한다.

1부는 최수열 지휘자와 KBS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애국가로 시작해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로 이어진다. 지난해 영국 BBC ‘가디프 콩쿠르’에서 한국 성악가 최초로 우승한 곡성 출신 바리톤 김기훈이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중 ‘임파서블 드림’을, 세계적인 소프라노 임선혜가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 ‘오버 더 레인보’를 선사한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가(A)장조’로 무대를 꾸민다.

2부는 올해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다문화 어린이합창단이 가수 박학기의 노래 ‘아름다운 세상’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피아니스트 박재홍과 첼리스트 한재민이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 함께 베토벤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3중 협주곡 3악장’을 협연한다.

이밖에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영화 ‘기생충’ 등 한류 콘텐츠 주요 음악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해 선보이며, 새해 희망을 담아 홀스트의 ‘행성 모음곡’ 중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도 들려준다.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피아니스트 손열음



권진규 작 ‘지원의 얼굴’ <권진규기념사업회 제공>



임직순 작 ‘포즈’

8일 이철수 판화작가와 대화

‘문인가 하였더니...’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큰 그릇이 있으면’

이철수 판화작가는 지난해 말부터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전시회 ‘문인가 하였더니, 다시 길’전(2월 28일까지)을 열고 있다.

‘무문관 연작’ 51점과 관련 작품 4점, 2011년 이후 신작 ‘호박옹’, ‘애고, Ego’, ‘길-연작’, ‘흔들릴 것들...’, 동화 ‘몽실 언니’ 원화 등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철수 판화작가를 만나는 작가와의 대화가 오는 8일 오후 1시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내 마음에서 일렁이는 욕망의 파도가 우리를 압도하는 시대,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나를 지키고 버랑궂을 걷는 듯 위태로운 경쟁사회 현실의 거친 물길을 건널 수 있을까요? 10년은 그 고민을 화두로 삼았고, 이번 전시는 온통 그 이야기”라고 밝혔다.

오전 10시~오후 7시 관람. 월요일 휴관. 문의 062-383-007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이남 작가, 中 ‘남경수목비엔날레’서 올해 첫 전시

방글라데시 아트비엔날레·베이징 국제미술비엔날레도 참여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벨기에, 라트비아, 스페인, 카자흐스탄 등 해외 대사관들의 미디어 전시에 한국 대표 작가로 초청받아 참여했고 중국 허난성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 파사드를 선보였다.

2022년 올해도 이 작가는 글로벌 행보를 이어간다. 시작은 6일 개막해 오는 3월 5일까지 이어지는 제2회 중국남경수목비엔날레 본전시다.

이번 전시는 ‘포스트 실험수목-우리는 어떻게 예술을 창조할 것인가(Post Experimental Ink-We How Great Art)’를 주제로 남

경사범대 미술학과 미술관에서 진행되며 중국 현대예술가 장위 작가가 전시 큐레이팅을 맡았다.

이 작가는 장위 작가와 남경사범대학교미술관의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됐으며 본전시에서는 각국에서 모두 20여명이 작품을 선보인다.

2010년에 이어 11년 만에 본전시에 참가한 이 작가의 출품작은 ‘만화병풍II-상상된 경계’. 유기적으로 미묘하게 얽힌 다양한 현대 사회의 이슈들을 담고 있는 ‘만화-병풍II-상상된 경계’는 디지털이 만들어낸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공존하고 대립되는 풍경



이이남 작가가 제2회 남경수목비엔날레에서 선보이는 작품 ‘만화병풍II-상상된 경계’

에 만화적인 요소들을 더해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이 작가는 올해도 방글라데시 아트비엔날

레, 중국 베이징 국제미술비엔날레 등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역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